

신문으로 보는 투자키워드

메타버스

KB운용 '메타버스 펀드' 첫 출시

최근 전 세계적으로 메타버스(metaverse)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가운데 KB자산운용이 업계에서 처음으로 메타버스 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내놨다. 메타버스란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를 합성한 신조어다. 가상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상을 의미한다.

KB자산운용은 14일 업계 최초로 글로벌 주식시장에 상장된 메타버스 대표종목에 투자하는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펀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국내투자자들이 메타버스 기업을 선별해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4차산업혁명과 함께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언택트문화 확산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메타버스는 글로벌 메가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모든 영역에서 물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도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펀드'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기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 기업(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과 가상공간을 구현하

는 소프트웨어 기업(오토데스크, 엔비디아, 유니티소프트웨어),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로블록스, 네이버, 하이브)과 가상세계 인프라 관련 기업(아마존, 쉐일, 스노우플레이크) 등에 투자한다.

이 중 미국의 '로블록스'는 올해 1·4분기에만 7000억원의 매출을 달성했고, 네이버의 증강현실 아바타 서비스인 '제페토'도 매일 전세계 2억명의 사용자가 이용 중이다. 이 펀드는 투자 조건에 부합하는 미국, 한국, 중국, 일본의 200~300개 유니버스 중 국가 및 산업별 분산도를 고려해 최종 30~50개 종목에 투자하게 된다. 국가별 비중은 미국이 70%로 가장 높고, 산업별 비중은 하드웨어와 플랫폼관련 비중이 각각 30% 내외로 높다.

KB증권, 교보증권, 유안타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한국포스증권에서 가입 가능하다.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는 "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서 빠르게 진화하는 메타버스 경제 수혜주를 선별해 투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메가트렌드로 급부상중인 메타버스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도록 펀드를

KB글로벌 메타버스 경제펀드가 주목하는 기업

하드웨어 기업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기업
오토데스크, 엔비디아, 유니티소프트웨어
플랫폼·콘텐츠 기업
로블록스, 네이버, 하이브
가상세계 인프라 관련 기업
아마존, 쉐일, 스노우플레이크

출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KB자산운용은 연초 글로벌 수소경제에 투자하는 펀드를 선보인 데 이어, 5월 채권형 상장지수펀드(ETF) 3종과 지난 10일 국내 주식 액티브상품인 비메모리반도체 ETF 등 시장을 선도하는 다양한 테마형 상품을 출시한 바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보도자료 바로보기

“메타버스 올라타자”...투자펀드 국내 첫선

KB운용 ‘글로벌 메타버스 경제펀드’ 로블록스·페북 등 수혜주 투자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의 성장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미국 등의 글로벌 메타버스 수혜주에 투자하는 펀드가 출시됐다.

KB자산운용은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펀드’를 14일부터 판매한다고 이날 밝혔다. 메타버스란 가공추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를 합성한 신조어로 3차원의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그동안 인터넷 커뮤니티나 플랫폼이 2차원적인 가상세계로 역할을 해왔으나 최근 5세대(5G) 통신 인프라와 함께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이 융합되며 3차원 세계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펀드 운용을 총괄하는 차동호 KB운용 이사는 “넓게 보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도 메타버스로 볼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의 메타버스는 3D 기반의 가상세계를 토대로 경제 생태계가 조성된 곳”이라며 “현재는 전 세계에서 후자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라고 설명했다.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펀드 개요

국가별 비중

미국 70%, 한국 10% 내외

주요 투자종목

- 플랫폼: 로블록스, 네이버(제페토), 하이브(위버스)
- 하드웨어: 페이스북(오culus), 마이크로소프트(AR기기), 애플(AR 글래스)
- 소프트웨어: 엔비디아(GPU), 오토데스크·유니티 소프트웨어(3D소프트웨어)
- 인프라: 아마존, 쉘컴, 스노우플레이크

수수료

A형: 1%선취 수수료+연보수 1.625%
C-E형 :선취 없음+연보수 1.425%

이 펀드는 메타버스 관련 하드웨어, 플랫폼, 소프트웨어, 인프라 기업 30~50개를 선별해 투자한다. 하드웨어의 대표적 사례는 페이스북이다. 페이스북은 자회사 오컬러스를 통해 가상현실(VR) 헤드 마운트

기기를 팔고 있다. 오컬러스는 전 세계 VR 헤드셋 시장의 5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올해는 300~400만 대 이상의 기기를 판매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크 저커버그는 누구나 스마트폰을 한 대씩 갖고 있듯이 앞으로는 VR 헤드셋이 차세대 개인 컴퓨팅 기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019년에는 호라이즌이라는 VR 소셜미디어도 출범시켰다. 플랫폼 중에서는 로블록스, 제페토를 거느린 네이버, 위버스를 가진 하이브 등을 포트폴리오에 담을 예정이다. 로블록스는 미국의 10대가 유튜브의 2.5배, 넷플릭스의 10배의 시간을 쓰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차 이사는 “인간의 활동에 있어서 시간을 지배하는 기업이 승자가 될 것”이라며 “이는 과거 공짜 메신저라고 생각했던 카카오톡의 현재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메타버스가 신사업 영역이어서 순수 메타버스 기업이라고 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고 관련 빅테크 기업들의 경우 메타버스 관련 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 점은 유의할 대목이다. 일례로 페이스북의 경우 최근 애플과의 데이터 갈등으로 주가가 흔들리고 있다.

/이혜진 기자 hasim@sedaily.com

보도자료 바로보기

‘20년 먹거리’ 메타버스 펀드 뜬다

삼성자산운용 글로벌 펀드 출시
클라우드컴퓨팅 등 중장기 테마
KB운용, VR 플랫폼 집중 투자
설정 후 수익률 2.29%에 달해

최근 증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메타버스(Metaverse)’ 테마에 운용사들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대형 운용사들이 관련 테마펀드를 잇따라 출시하며 투심 잡기에 나선 것이다.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가상세계와 현실이 뒤섞여 시공간의 제약이 사라진 세상을 뜻한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자산운용은 이날 메타버스 테마 관련 핵심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는 ‘삼성글로벌 메타버스 펀드’를 출시했다. 이 펀드는 2개의 집중 투자그룹과 6개의

테마로테이션 그룹 등 총 8개의 테마로 분류해 운용된다.

집중 투자그룹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을 중장기적으로 견인할 핵심 테마로 클라우드 컴퓨팅과 가상현실 테마가 선정됐다. 테마로테이션 그룹은 관심도와 모멘텀에 따라 리스크 관리 및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는 테마다.

최병근 삼성자산운용 매니저는 “초기 성장기에 진입한 메타버스는 향후 20년을 주도할 메가트렌드”라며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테마별 종목을 선별하고 유니버스를 구축하는 것이 큰 차별점”이라고 말했다.

KB자산운용은 지난 14일 ‘KB글로벌 메타버스경제펀드’를 내놓았다. 이 펀드는 가상현실(VR) 및 증강현실(AR) 기기 등을 제조하는 하드웨어기업(페이스북, 애플 등)과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기업(오토데스크, 엔비디아 등), 플랫폼 및 콘텐츠 기업(로블록스, 네이버 등)과 가상세계

메타버스펀드 주요 편입종목

KB 글로벌 메타버스경제펀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엔비디아, 아마존, 쉘컴, 로블록스, 하이브, 스노우플레이크 등

삼성 글로벌 메타버스펀드

페이스북, 루멘텀, 징가, 페이팔, 네이버, 로블록스, 일렉트로닉아츠, 테이크투인터랙티브 등



인프라관련 기업(아마존, 쉘컴 등) 등에 투자한다.

성과도 고무적이다. 이 펀드의 설정 이후 수익률은 2.29%, 최근 1주일 성과는 2.26%다.

이는 동기간 글로벌펀드 평균 수익(0.37%)을 웃도는 수준이다.

KB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에 이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관련 테마 펀드 출시를 검토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환경과 5G통신, AI 등의 기술발전으로 메타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관련 테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2025년 4764억 달러 수준까지 성장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운용사들도 중장기 유망테마로 점찍은 모습”이라고 말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